

# 강진 불금불파서 5월의 추억 만드세요

가정의 달 맞이 가족이벤트 다채  
문화공연·체험·가족사진·마술쇼  
파전·하멜맥주 등 먹거리도 풍성

“5월 강진 불금불파에서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강진을 들썩이게 하는 ‘강진 불금불파’가 관광객으로 북적이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불금불파는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의 줄임말로 강진군 병영면의 고구 먹거리인 불고기와 함께 문화 공연과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상반기는 6월 7일까지 운영된다.

강진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2일과 3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어린이 동반 가족이 행사장 내 불고기 영수증을 제시하면 모루인형, 모루틀립, 파우치, 라탄 도어벨, 디퓨저 등 다양한 나만의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행사장을 방문한 가족은 강진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가족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2일에는 가족밴드 ‘에달밴드’, 3일에는 가정의



가수 에녹이 불금불파 행사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달 특별공연으로 ‘유대진 마술사’의 신기한 마술 공연과 하이라이트 EDM DJ 공연이 준비돼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모으고 있다.

여행의 재미를 더할 먹거리도 풍성하게 차렸다.

병영돼지불고기, 파전, 주먹밥, 팝콘, 하멜촌 커피와 하멜촌 맥주 등 강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준비돼 있으며, 먹거리 이벤트로 불고기 2인분 이상 주문하면 하멜촌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현장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달 25일 가수 에녹의 특별공연으로 1000명 안팎의 외부 관광객이 찾아왔다”라며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로 군민과 관광객을 만족하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나주시, 배 기능성 소재 활용 고부가가치화 방안 모색

연구용역 개발 최종 보고회

화장품 원료 추출 상용화 나서

나주시가 지역 특산물 배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배박(배껍질)에 다량 함유된 화장품 원료(알부틴)를 저비용으로 추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배 관련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좋은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선), 가보팍스(대표 김희성), 농식품가공지원센터(센터장 이승제), 나주 배원에농협(상무 박지영)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배 비상품과 활용 고효율 천연 기능성 성분 추출법 개발 및 특허 출원’으로 20여년 동안 배의 상품화에 매진해 온 남승희(웰바이오(주)) 대표가 수행했다.

남 대표는 배 관련 12건의 특허와 10건의 기술이전, SCI급 논문 7건, 상품화 8건 등 배 상품화 분야의 전문가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저품위과 착즙 후 남은 배박에서 천연 알부틴을 추출하고 그 방법으로 특허 출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배박에는 주름 개선 및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지난 25일 나주시청 이화실에서 안상현 나주 부시장 주재로 배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나주시 제공〉

천연 알부틴이 존재하고 브라이트닝(미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천연 화장품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특히 나주농업진흥재단 농식품종합가공지원센터 설비를 이용해 저비용의 천연 알부틴을 대량 생산하고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한 후속 연구지원 강화와 더불어 배 기능성 성

분에 대한 효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식용을 넘어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활용 확대에도 힘을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명품 나주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라며 “고부가가치화 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배 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군, 1천㎡ 이상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환경오염·농지 훼손 예방

장흥군은 올해 1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50cm 이상 성토 또는 절토로 농지를 개량하는 행위이며, 농지개량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사용권)인증서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해 장흥군 농지허가부서(행복민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자, 공사기간, 흙의 반입 또는 반출처, 성토 또는 절토의 규모 등의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양오염 및 토양성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토, 절토하는 경우 ▲재해복구 등 사유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경미한 행위인 경우(면적 1000㎡ 이하,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하의 성토 또는 절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성토,절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농지개량행위를 계획 중인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장흥군 허가부서와 협의해 사전 신고절차를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지난 24일 열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정책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장성군, 벼 재배면적 줄인다...“쌀값 안정 노력”

올해 474ha 감축 목표

“벼 재배면적 조정 함께해요.”

장성군이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나섰다.

장성군은 최근 11개 읍면을 돌며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벼 재배를 줄여 과잉 생산을 막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이다. 장성군은 올해 474ha를 감축 목표 설정했다.

감축 방식은 농지 전용,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휴경), 전락직불 등 다양하며, 참여 농가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과 농업보조사업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장들은 감축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다졌다.

군은 앞으로도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재배면적 조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담양군, 송순문학상 공모...7월 한달간 접수

담양군이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대가인 면양정 송순(宋純·1493~1583)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13회 송순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는 ‘대상’, ‘새로운시인상’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 새로운시인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을 수여한다.

응모 기간은 7월 한 달간 진행되며, 11월 중 당선작 선정 후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대상 부문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출간된 신작시집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새로운시인상은 첫 시집을 내고자 하는 작가의 시집 한 권 분량(50편 내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면양정 선생의 문학정신을 현대에 맞게 계승하고, 유망한 시인들이 담양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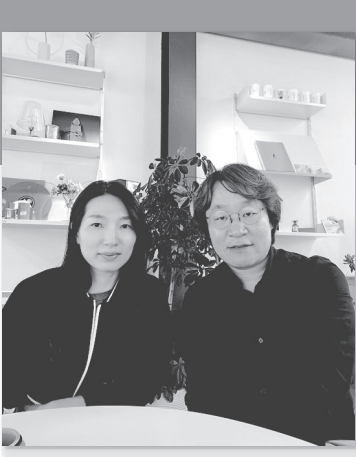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